

계약 생산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장영진*

Research Trends and Problems Regarding Contract Farming

YoungJin Jang*

요약 : 계약 생산은 수직적 조정에 의해 농산업의 전후방 연계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제도로써 오늘날 농식품 체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농산물의 계약 생산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점차 보편적인 현상이 됨에 따라 지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 생산에 관한 해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보면, 계약 생산의 성장 배경을 농식품 체계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계약 생산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계약 생산의 경제적, 환경적 영향과 지역 발전 정책으로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계약 생산에 관한 장래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계약 생산, 수직적 조정, 농식품 체계, 지역 발전 정책

Abstract : The contract farming scheme of today is a new system that allows th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of the agribusiness through vertical coordination while also leading the changes within the agri-food system. As contract farming of agricultural products becomes routine in both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it is gaining the attention of researcher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geography. This research discusses the research trends and problems regarding contract farming through literary research on the research progress of foreign researchers on contract farming. The content of the research specifically includes explanations regar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ise of contract farming and changes in the agri-food system and discusses the basic theoretical foundations of contract farming. The research also defines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contract farming and its purpose in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nd concludes with discussions of the possible future research subjects on contract farming.

Key Words : contract farming, vertical coordination, agri-food system, regional development policy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16학년도 연구년교수 학술지원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임.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angyj@knue.ac.kr)

1. 서론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농산물 교역에서 유래 없는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는 초국적 기업에 의해 세계화된 반면, 농산물 생산에서 농민과 영농 조직의 통제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영역적 스케일에서 규제 기관들이 농식품 사슬의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Boyd and Watts, 1997; Castree, Kitchin, and Rogers, 2013).

이와 같은 농식품 체계의 변화는 지리학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농장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농업 생산 전반을 아우르는 전체 범주와 관계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Page, 2000), 지리학자들은 농식품 체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기제로서 계약 생산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농산업의 전후방 연계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로컬 생산자가 어떻게 글로벌 농식품 체계의 네트워크에 통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Marsden *et al.*, 1996, 371).

오늘날 농산물의 계약 생산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점차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Otsuka, Nakano and Takahashi, 2015). 이에 따라 계약 생산에 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을 사례로 한 연구가 압도적이다. 이는 계약 생산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에서도 농산물 생산에서 계약 생산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리학계에서 농식품 체계의 변화와 계약 생산의 실제에 주목한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한주성, 2009; 장영진, 2013; 장영진, 2015). 이와 같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계약 생산에 관한 해외 학계의 연구 성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계약 생산의 성장 배경 및 의미와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장래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해외 학계에서 계약 생산에 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지리학을 비롯하여 농업 경제학과 사회학 그리고 농촌 및 농업 발전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 계약 생산에 관한 연구는 계약 생산의 경제성, 계약 참여 주체 간 관계, 계약 생산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지역 발전에 대한 함의 등 분야별로 강조점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계약 생산의 실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각각의 사례에서 얻은 연구 결과는 다시금 관련 주제들에 중요한 함의를 갖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관심사는 상호 중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연구자들은 인접 분야의 연구 성과를 서로 공유하면서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 성과의 분야별 구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약 생산에 관한 해외의 연구 동향과 과제를 고찰하기 위해 지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계약 생산이 성장한 배경을 농식품 체계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농산물 조달에서 계약 생산 방식이 채택되는 이론적 기초를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계약 생산에 관한 연구 동향을 계약 주체 간 관계와 계약 생산의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넷째, 개발도상국에서 계약 생산 방식이 지역 발전 정책으로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생산에 관한 장래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계약 생산의 성장 배경과 의미

1) 농식품 체계의 변화와 계약 생산의 성장

지난 수십 년 간 농식품 산업에서 나타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종자로부터 각종 투입물과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초국적 기업의 지배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Dicken, 2011). 이러한 초국적 기업의 활동은 기존 농식품 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농식품 체계(agri-food system; agro-food system)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이들 간 관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규제 기구 등에 포함된 행위자의 총체’(Castree, Kitchin and Rogers, 2013, 11)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농식품 체계에서는 대형 농산업체와 소매업체, 그리고 금융기관 등 농업 외부 자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권력의 불균등한 배분과 자본 축적 하에서 생산의 장소와 소비의 장소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obinson, 2013).

이로 인해 분절되어 있던 농식품 산업은 소수의 초국적 기업에 의해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조정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상품 조달 네트워크의 지리를 변화시키게 된다(Dicken, 2011). 이와 같은 농식품 체계의 변화는 투입물의 공급과 농산물의 가공을 중심으로 기업이 농민의 역할을 대체하는 농업의 산업화를 전제로 한다. 투입물 공급과 관련된 농업의 기계화와 화학농법의 발전 그리고 농산물의 가공을 담당하는 식품기업의 발전은 농업의 산업화를 이끄는 양대 축이다(Troughton, 1986).

오늘날 농식품 체계는 초국적 농산업체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세계화되는 동시에 특정 농업부문 및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Ilbery, 2001). 이는 초국적 농산업체가 농산물의 연중 조달과 노동 비용의 저감, 그리고 노동 및 환

경 규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생산 지역을 이동하는 과정과 관련된다(Knox, Agnew and McCarthy, 2014).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 경제(transition economy)에서 농식품 사슬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농식품 체계가 다른 생산 체계와 구별되는 것은 생물학적 과정과 순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초국적 농산업체는 자본 축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농민과의 계약 생산을 통해 필요한 원료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농업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자 한다(Ilbery, 2001; Whatmore, 2002). 이에 따라 계약 생산은 투입물의 공급과 생산의 결정(생산), 자본과 금융의 제공(자본), 그리고 농산물의 글로벌 조달(교역) 등에 관여함으로써 농업의 세계화 과정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Hasan and Mandal, 2011).

다시 말하면, 계약 생산 방식은 글로벌 농식품 체계의 특징적인 조직 형태이자 다양한 결절 간 연계를 촉진하는 기체로서(Morrison, Murray and Ngidan, 2006), 농식품 체계가 세계화되고 재구조화되는 근본적 수단이 되고 있다. 개발 도상국에서 신선 과일과 채소 등 비전통적 수출품의 등장은 다양한 형태의 계약 생산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농식품 체계가 세계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Watts, 1994).

계약 생산 방식이 농업에 도입된 지 이미 100년이 넘었지만 이러한 방식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로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먼저 발전하기 시작하여 점차 글로벌 경제의 주변부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산업 분야에 대한 초국적 기업의 진출과 이로 인한 글로벌 농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미국에서는 1880년대부터 사탕무나 복숭아와 같은 가공용 작물에서 다양한 계약 생산 방식이 적용되

기 시작했다(da Silva, 2005; Miyata, 2007). 이후 1950년대에 이르면 미국을 비롯하여 서유럽에서도 여러 식품과 섬유 부문으로 계약 생산이 확대된다(Little and Watts, 1994; Watts, 1994).

한편, 개발도상국에서 계약 생산의 기원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계약 생산이 기존의 플랜테이션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고, 다른 하나는 초국적 기업 또는 국영 기업과 소농 및 신규 정착 농민들의 참여에 의해 시작되었다. 계약 생산의 기원이 무엇이든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계약 생산의 확산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주도하에 추진된 경제 구조조정과 부채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촉진되었다. 여기에 개발도상국 정부가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면서 더욱 성장하게 된다(Watts, 1994; Porter and Phillips-Howard, 1997). 이로써 계약 생산은 지난 40여 년간 신선과일과 채소, 축산 및 원료 작물의 성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에는 소득의 증가와 저장 및 운송 기술의 발달, 식품 가공 산업의 유래 없는 성장 그리고 가공 식품의 소비 증가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Hart, 1978; Watts, 1994).

2) 계약 생산과 수직적 조정

농산물 수요 기업이 농산물을 구득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물 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규모 농지 및 가공 설비의 소유주가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을 직접 통제하는 플랜테이션 방식이다. 그리고 이들 양자의 중간 형태로서 계약 생산 방식이 있다(Key and Runsten, 1999). 이는 기업이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채 생산 사슬에 대한 조정을 통해 생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일반 시장과 플랜테이션 양자의 중간 수준에서 수직적 통합이 진행됨을 의미한다(da Silva, 2005).

계약 생산을 의미하는 영문 표현에는 ‘contract farming,’ ‘contract production,’ ‘contract cultivation,’ ‘contract agriculture’ 등이 있으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contract farming’이다. 국내 학계(농학, 지리학)에서는 ‘contract farming’을 ‘계약 농업’ 또는 ‘계약 생산’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는 ‘계약 생산’이다. 사전적으로는 ‘계약 농업’으로 번역되고 있지만(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관련분야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계약 생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contract farming’을 나타내는 용어로 ‘계약 생산’을 채택하고자한다.

계약 생산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단지 계약 생산의 기본적인 골격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구매자와 농민 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농업 생산’으로 정의한다(<http://www.fao.org>). 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에 의한 물량, 품질, 가격, 공급시점 등에 대한 상세한 거래 약정, 특정 투입물의 공급 그리고 생산에 대한 통제 등에 의해 생산을 직접 결정하는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의 수직적 조정방식’과 같이 정의한다(Little and Watts, 1994). 이는 계약 기업이 투입물의 공급과 생산 관리에 참여함에 따라 수직적 조정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생산 방식에 대한 정의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주로 계약 생산의 현상적 측면에 주목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다음 정의에서는 계약 생산에 대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계약 생산을 조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하류(downstream) 구매자가 불확실성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한 조직적 행위의 총체’가 그것이다(Pritchard and Connell, 2011, 237). 이는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산업체가 계약 생산을 주도하며, 계약 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목적이 기업의 농산물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한

다. 다시 말하면, 계약 생산이란 대량의 농산물 조달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품질, 물량, 입지, 인도 시점 등에 부합하는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 채택한 공급 사슬 거버넌스(da Silva, 2005)로서, '구매 기업에게 농산물 생산에 더 많은 통제력을 부여하고자 고안된 비교적 유연한 통합 방식'이라는 것이다(Morrison, Murray and Ngidan, 2006, 192).

그렇다면 계약 생산 방식이 농산물 구매자가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시키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그동안 계약 생산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의 틀로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개념이 부각되었다(da Silva, 2005). 거래비용은 기업이 거래 과정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발생하는 정보 습득 비용 및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 비용, 그리고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 거래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강제하는 사후 비용 등이 해당된다. 기업은 거버넌스 양식을 선택할 때 이러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자산 특수성, 불확실성, 거래 빈도 등과 같은 거래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먼저, 자산 특수성(asset specificity)은 하나의 자산이 특정 용도로 이용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Williamson, 1985), 자산 특수성이 높을수록 대안적 이용 가치가 낮아지므로 기업은 공급 사슬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향하게 된다. 기업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거래 참여자의 행위나 외적 요소 또는 타인의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기업은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되어 수직적으로 조정된 거버넌스 양식을 추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래 당사자 간 거래 빈도가 낮은 경우 상호 간 정보 부재와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직적 협력을 추구하게 된다.

요컨대, 농식품 산업에서 자산 특수성이 촉진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직적 조정을

강조하는 계약 생산 방식의 증가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의 합리적인 대응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래비용 이론이 경험 연구에서 항상 일관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설명은 계약 생산에 대한 최근 분석에서 주요한 설명의 틀을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거래비용 개념에 기반 한 설명은 계약 농민보다는 주로 계약 기업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계약 생산을 주도한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기업이 현물 시장과 플랜테이션에 비해 계약 생산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현물 시장 거래는 가격에 의해서 조정되고 거래 참여자들은 거래를 지속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물 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과일이나 신선채소와 같은 일부 상품은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의 거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거래비용이 높아진다. 플랜테이션은 농지 및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자산 특수성의 증가 및 이로 인한 매몰 비용의 발생 우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모니터링 비용을 비롯한 관리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다(Otsuka, Nakano and Takahashi, 2015). 여기에 농지 소유 및 노동 조건 관련 갈등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은 플랜테이션의 지속적 운영을 어렵게 한다(Watts, 1994; Smalley, 2013). 이로 인해 외부화에 의한 유연적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결과적으로 계약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계약 생산은 대규모 자본투자로 인한 매몰비용과 농장에 대한 직접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물론 농민의 관점에서도 계약 생산은 현물시장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의 투입물 공급 및 농산물의 계약

구매로 인해, 투입물 구득과 농산물 판매 가격 및 판로 관련 거래비용이 감소하며 기업의 금융 지원으로 인한 금융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기업의 기술지원으로 인한 품질 관련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된다(Eaton and Shepherd, 2001; da Silva, 2005).

이처럼 계약 생산 방식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되고 있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거래비용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계약 생산은 기업으로 하여금 역량 있는 농민을 파악하고 이들이 계약을 준수하게 하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통제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Otsuka, Nakano and Takahashi, 2015). 계약 농민의 관점에서는 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의 계약 조건 위반 가능성, 생산 물량 및 생산성에 대한 기업의 저평가 우려, 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투명성 저하 그리고 장기 계약으로 인한 수취가격 하락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Eaton and Shepherd, 2001; da Silva, 2005).

3. 계약 생산에 관한 연구 동향

1) 계약 주체 간 관계

전통적으로 농민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생산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의사결정자로서 토지 이용 및 농촌 경관 형성의 주요 행위자이다. 따라서 농민을 둘러싼 다양한 자연 및 인문·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농민의 의사결정 과정은 지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러나 기업과의 계약 생산 하에서 농민은 더 이상 독자적인 생산 주체로서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계약 주체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농민의 역할과 지위 변화에 주목하게 되

었다.

농민은 일반적으로 계약 생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계약 생산이 지속됨에 따라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작부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레 계약 작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농민은 기업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탈퇴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Key and Runsten, 1999).

이와 같은 계약 기업과 계약 농민 간 관계는 계약 품목에 대한 계약 기업의 투입물 공급 및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수직적 조정의 정도와 관련지어 고찰할 수 있다. 예컨대, 계약자(contractor, 계약 기업)가 농산물의 구매에 초점을 두고 농산물의 품목과 구매 조건(가격, 품질, 인도 시점)을 중심으로 농민(contractee)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업은 생산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구매 계약, procurement contract). 반면 앞의 계약 내용에 더하여 기업이 투입물의 일부나 기술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 기업의 통제력은 구매 계약에 비해 강화될 것이다(부분 계약, partial contract). 마지막으로 계약 기업이 전체적인 생산 관리를 위해 모든 투입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며 산출물을 구매하는 경우, 기업의 통제력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고 농민은 기업이 제시하는 생산 방식 및 기술 지도에 대한 준수 의무를 지게 된다(전체 계약, total contract)(Singh, 2002; da Silva, 2005; Biswas, Singh and Kumari, 2013)¹⁾. 이처럼 계약 생산에서 기업의 역할이 증가할수록 계약 농민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금 계약 참여자 간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농민들은 ‘농민 노동자’(peasant worker)(Boyd and Watts, 1997)나 ‘지주 노동자’(propertied laborer)(Davis, 1980)로 불리거나, ‘계약 생산이 기업의 구상(기능)과 농민의 실

행(기능)을 분리함에 따라 농민의 탈속련을 야기한다'(Clapp, 1994, 81)는 주장과 같이 계약 생산으로 인한 농민의 종속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인해 계약 생산 방식은 계약자인 농산업체가 생산자에게 권력을 휘두르게 하는 도구라고 비판받는다(Key and Runsten, 1999).

그러나 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기업에 대한 농민의 의존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계약 생산 지역에서 계약 품목과 동일 품목 또는 유사 품목에 대한 농민의 생산 경험이 누적되어 기업의 기술 지원이 큰 의미를 갖지 않거나, 투입물 시장이 성장하여 기업의 투입물 공급에 의존할 필요가 없거나, 계약 품목에 대한 자산 특수성이 높지 않아 손쉽게 품목 교체가 가능하거나, 계약 품목에 대해 기업이외에 대안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기업에 대한 농민의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또한 계약 생산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계약자와 생산자 간 구성에 따라 양자 간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계약 기업이 복수로 존재하고 농산물 생산자 풀이 제한된 경우, 기업은 농민을 유치하기 위해 상호 경쟁을 벌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위와 유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명시적인 생산자 단체의 결성 및 집단적 자구노력이 없는 경우에도 양자 간 권력 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Imbruce, 2008).

요컨대, 계약 생산지역에서 계약 품목과 관련하여 기술, 투입물, 자산, 시장 등에서 대안적 선택지가 존재하거나 생산자 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우, 계약 농민은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의 농업 조건은 다시금 계약 기업의 역할과 계약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해당 지역의 계약 생산을 특징짓게 된다.

2) 계약 생산의 경제적 영향

계약 생산에 관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계약 생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 세 가지 주제로 대별할 수 있는데, 계약 생산이 계약 농민의 소득 또는 생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계약 생산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농과 같은 역내 특정 계층의 배제 여부, 그리고 계약 생산이 시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역내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그것이다.

첫째, 계약 생산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농촌 빈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련의 연구들에 따르면 계약 생산이 참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함에 따라, 계약 생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농민이 계약 생산에 참여하면서 가족노동이 투입되고 이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소득 향상 효과는 과대평가 될 수 있다. 생산 효율성(단위 투입물 당 생산량)도 비참여 농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 계약(procurement contract)보다는 생산 계약(production contract)에서 경제적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계약 기업이 공급하는 투입물과 앞선 생산 기술 및 컨설팅 효과에 기인한다(Jones and Gibbon, 2011; Key and McBride, 2003; Otsuka, Nakano and Takahashi, 2015; Wang, Wang and Delgado, 2014).

반면, 계약 생산에 참여한 소농의 한계화와 이로 인한 불균등 현상의 확대를 우려하는 비판적 관점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계약 생산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 강조되었는데, 주로 지역 농가의 경제수준이 열악하고 기업에 대한 협상력이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 3세계를 중심으로 보고되었다(Miyata, 2007).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 기관이 계약

생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농이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를 유지시키는 경향이 나타난 바 있다(Terry, 1997). 오늘날에는 계약 참여 농민의 빈농화 현상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Smalley, 2013). 이는 계약 생산의 성공적인 운영이 제도 자체보다는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실행되는가가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둘째, 연구자들은 계약 생산에서 특정 계층, 예컨대 소농 또는 빈농의 배제 여부에 주목한다. 이는 농민 간 불균등한 소득 분배와 자산 보유 및 인적 자본으로 특징지어지는 제3세계 농촌에서, 계약 생산 지역 내 계층 간 불균등 현상의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Key and Runsten, 1999).

그동안 농장의 규모와 계약 생산에 대한 참여는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상과 같은 우려는 부분적으로 사실임이 드러났다. 게다가 참여 농가의 경제적 성과로 인해 비참여 농가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문제점도 보고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소농들이 계약 생산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농이라고 해서 반드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품목별 생산 조건에 따라 기업이 선호하는 농장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Simmons, Winters and Patrick, 2005), 시장 접근성이 좋은 대농의 경우 계약 기업과의 협상력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대농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소농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고(Runsten and Key, 1996; Korovkin, 1992), 일부에서 농산물의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제한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춤에 따라 소농의 참여가 용이해진다(Smalley, 2013). 또는 계약 생산이 진행되는 지역이 소농이 지배적인 경우, 계약자가 소수의 대농을 원한다 하더라도 달리 대안이 없는 경우에도 소농의 참여가 가능해진다(Pritchard and Connell, 2011).

한편, 소농들이 기업과의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생산자 단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도 한다(Otsuka, Nakano and Takahashi, 2015; Wang, Wang and Delgado, 2014). 또한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비정부기구 등이 계약 생산 방식을 정치적 포섭이나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정부 및 해외 원조기관이 소농과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소농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Smalley, 2013).

이상과 같이 농장 규모가 농민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 생산의 목적과 계약 품목, 거래 효율성을 위한 기업의 전략, 나아가 로컬 농업의 특징 등에 따라 계약 참여 농가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농장의 규모가 계약 생산에 대한 참여와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셋째, 계약 생산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논의이다. 이에 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는 못했는데, 주로 생산 지역 내 고용의 증가와 이로 인한 지출의 증가에 대해 보고된 바 있다. 고용 효과는 대규모 농지와 가공 및 포장 설비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영농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Little, 1994), 투입물 취급 및 농산물 매매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역대 소득이 재투자되었다는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Smalley, 2013).

계약 생산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초국적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작물 생산과 관련된 운영 노하우와 생산 기술을 획득함에 따라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계약 생산에 의한 수출용 작물의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현지 중소기업으로 전파됨에 따라 전통 작물 및 여타 국내용 작물에 적용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역내에서 관련 투입물 시장이 발전하고 해당 농산물의 가공으로 인해 제품 시장이 출현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Key and Runsten, 1999; Weatherspoon and Reardon,

2003; Masakure and Henson, 2005; Otsuka, Nakano and Takahashi, 2015).

한편, 특정 작물의 계약 생산은 해당 지역의 농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Imbruce, 2008). 예컨대,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계약 품목이 도입되어 생산되는 경우 계약 참여 농가와 비참여 농가 간 작물의 차이로 인해 역내 농업의 다각화가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생산은 주곡작물 위주의 개발도상국 농촌에서 농업의 다각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Pritchard and Connell, 2011).

3) 계약 생산의 환경적 영향

계약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계약 생산 연구자들로부터 그다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계약 생산이 농업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관해서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 생산이 선진 산업국의 관행 농업에 기반을 둔 단일 품목의 대규모 생산이 특징적이고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채 생산을 통제하는 계약 기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 생산을 위해 농지를 조성하고 연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숲이 파괴되고, 대규모 관개로 인해 수자원이 고갈되거나 농지의 염도가 상승하였다(Biswas, Singh and Kumari, 2013). 또한 관행 농업의 대대적인 시행으로 인한 화학적 투입물에 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단일 작물의 경작으로 인해 토양의 비옥도가 하락함은 물론 지역 내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Little, 1994; Singh, 2002; Smalley, 2013). 일부 지역에서는 관행 농업의 시행으로 인해 전통방식을 따르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영농 체계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Redclift, 1987).

이처럼 로컬 자원의 소진 및 오염으로 인해 생산성 하락이 발생할 경우, 이는 해당 지역에서 더 이상 영농의 규모화가 불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 기업들은 새로운 생산자와 토지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다시금 기존 계약 생산 지역에서 계약 생산에 의한 경제적 효과의 지속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든다(Singh, 2005).

반면, 최근에는 계약 생산이 개발도상국에서 유기농법의 확산을 통해 지역 농업 환경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특히 열대 아프리카에서는 유기 농업의 확산에서 계약 생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유기농산물 수출업체의 주도로 집단 인증 시스템에 의한 인증과 수출에 의한 시장 확보가 그 기반이 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적 지원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사적 금융 지원과 국내 저축도 낮은 수준이므로 현실적으로 유기 농업은 계약 생산체계 하에서나 가능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Bowlig, Gibbon and Jones, 2009).

4) 계약 생산과 지역 발전 정책

오늘날 계약 생산 방식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자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지만, 농업의 비중이 큰 저개발국가에서는 농업이 고용의 주요 원천이자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Terry, 1997). 게다가 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와 농민에 대한 지원 중단 요구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에서(Barik, 2012; Biswas, Singh and Kumari, 2013) 계약 생산은 농업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Wang, Wang and Delgado, 2014; Otsuka, Nakano and Takahashi, 2015). 이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에서는 최근 농산물 계약 생산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계약 생산에서 누가 이익을 얻는가的问题是 장래 농촌 발전에 대한 논의와 깊은 관련이 있

기 때문이다(Pritchard and Connell, 2011). 국제 기구에서도 계약 생산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촌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이를 보급하고자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World Bank, 2007; <http://www.fao.org>).

그렇다면 계약 생산 방식을 정책 도구로서 채택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는 수출용 농산물의 생산과 플랜테이션의 대체, 그리고 낙후 지역 개발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수출용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계약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농업은 소농이 지배적이고 농민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생산 및 관리 기술의 효율성도 낮고 관련 기반시설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계약 생산 방식은 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선진산업국의 고급 시장에 대한 접근과 이로 인한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계약 생산 방식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에서 1980년대 이후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 및 농업의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용 농산물 생산의 보편적 수단이 되고 있다(Thrupp, 1995; Imbruce, 2008). 또한 남부아시아에서도 농산물 수출지대에서 농산물 생산 및 가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는 현대적인 기술 및 자원에 대한 소농의 접근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계약 생산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http://apeda.gov.in>; Barik, 2012; Hasan and Mandal, 2011).

둘째, 플랜테이션이 널리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계약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플랜테이션은 그것이 보여준 ‘인클레이브(enclave)’ 특성으로 인해 비판 받고 있는데, 계약 생산 방식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농촌 발전 프로그램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발도상국의 정부 기관은 계약 생산 방식이 플랜테이션과

달리 외국인의 대토지 소유를 방지하고 로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나 연계효과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하여 이를 선호하고 있다(Glover and Kusterer, 1990).

실제로 플랜테이션을 계약 생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공시설이 확충되면서 역내 고용이 창출되고, 관련 투입물 부문이 성장할 뿐 아니라 관련 하부 시설이 정비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Huddleston and Tonts, 2007).

셋째,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미개척지에 대한 인구 재배치 정책과 연계하여 신규 농지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계약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Glover and Kusterer, 1990). 예컨대, 말레이시아에서는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정착지 조성 및 소농 육성을 위해 계약 생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1980년대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수목작물의 계약 생산이 확산되었다(Watts, 1994). 나아가 계약 생산 방식은 다민족 국가에서 민족 간 차별 철폐 정책의 일환으로 낙후된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공적 부문이 참여한 계약 생산은 농촌에서 소수민족이 당면한 불균등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Morrison, Murray and Ngidang, 2006).

이상과 같이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 계약 생산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생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거래비용 및 위험을 감소시킬 적절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 기업과의 관계에서 소농 및 노동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이 요구된다. 나아가 계약 생산을 촉진하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 비정부기구와 같은 제 3자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da Silva, 2005).

4. 계약 생산에 관한 연구 과제

농산물의 계약 생산에 관한 연구는 계약 생산의 운영 메커니즘과 계약 생산자 및 생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관한 연구에서는 계약 생산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내용, 예컨대 계약 생산을 둘러싼 전후방 네트워크, 계약 기업의 공간 전략, 그리고 계약 생산의 지리적 맥락 등에 관해서는 논의가 미흡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첫째, 지리학에서 농식품 체계의 일부로서 농업을 연구하는 것은 농장 수준의 연구에서 벗어나 농식품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계약 생산은 이와 같은 농식품 체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계약 생산 주체를 둘러싼 전후방 네트워크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농장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가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Castree, Kitchin and Rogers, 2013, 11).

계약 생산이 과거 분절되어 있던 농식품 체계의 수직적 통합을 가져오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 국가적 및 초국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 생산에 관한 연구는 계약 생산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 간 교역적·비교역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계약 생산의 주요 주체인 계약 기업과 계약 농민은 물론 이들을 둘러싼 행위자들, 예컨대 종자를 비롯한 각종 투입물로부터 기술 및 금융 서비스, 가공 및 물류 부문, 그리고 관련 제도적 측면 등에 관여하는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생산 네트워크가 그것이다. 이로써 특정 품목의 농식품 체계에서 해당 지역의 계약 생산이 빠르게 자리매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계약 생산은 기본적으로 계약 기업의 주

도하에 조직되는 농산물 조달 방식이므로 계약 기업의 공간 전략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마치 계약 품목과 생산 지역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연구자들이 계약 생산을 주도하는 기업보다 계약 농민의 소득 향상에 주목함에 따라 빚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계약 생산을 주도하는 계약 기업은 식품 가공업체, 투입물 생산업체, 농산물 유통 업체 또는 대형 소매업체 등과 같이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규모 기업이라는 점에서 계약 생산 연구는 이들의 공간 전략에 대한 지리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계약 기업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다양한 지역에서 계약 생산을 수행함으로써 잠재적 생산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하며(Pritchard and Connell, 2011), 계약 생산 지역을 결정할 때 가공시설의 입지와 함께 결정하거나 적어도 가공 시설의 입지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TechnoServe·IFAD, 2011). 계약 생산 지역 내적으로도 생산 관리 비용과 운송비 저감을 위해 생산자들의 공간적 군집을 추구한다(Hart, 1978). 이처럼 계약 생산 지역과 역내 공간 조직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약 기업의 다양한 공간적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계약 생산 연구에서 생산 활동의 장소 특수적 맥락은 계약 생산의 실제와 그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연구는 특정 품목이 생산되는 지역 단위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리적 맥락을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계약 생산은 많은 경우 새로운 농산물이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적·기술적·조직적 조건 하에서 생산됨을 의미하므로 해당 지역에서 농식품 산업의 재구조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처럼 계약 생산은 농촌 변화를 주도하는 기제로서 농촌을 선택적으로 재조직하고 계약 생산자에게 우위와 기

회의 지리를 만들어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에서는 지역과 입지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Watts, 1994; Pritchard and Connell, 2011).

더욱이 특정 품목에 대한 계약 생산은 농산물의 생육 조건과 관련된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투입물 시장과 농민의 생산 기술 및 농산물 시장 조건에 영향을 주는 지역 농업의 발전 경로, 그리고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계약 생산 방식이 특정 지역에 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품목의 영역적 발전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계약 생산의 실제와 그 결과는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한데, 이는 계약 생산 방식 자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보다 계약 생산이 특정한 로컬 조건 및 이와 상호 구성적 관계에 있는 글로벌 맥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Imbruce, 2008). 따라서 계약 생산에 관한 연구는 계약 생산이 진행되는 지역 및 이를 둘러싼 다양한 스케일의 지리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지리학자들은 계약 생산을 농식품 체계의 세계화와 재구조화를 주도하는 근본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로컬 생산자가 어떻게 글로벌 농식품 네트워크에 통합되고 이 과정에서 농업 지역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지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계약 생산의 성장 배경을 농식품 체계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계약 생산의 이론적 기초를 거래비용 개념을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계약

생산의 경제적·환경적 영향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도구로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계약 생산에 관한 장래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계약 생산이란 농산물 수요기업의 주도하에 농산물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채택된 농산물 구득 방식으로서, 기업이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채 농산물 생산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하는 유연적 통합 방식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수직적 조정을 강조한 계약 생산 방식의 증가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지만 그것의 실행 과정에서는 또 다른 거래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그동안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계약 생산을 주도하는 주체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관점보다는 계약 농민과 생산 지역에 주목하고, 계약 생산이 계약 참여 농가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계약 생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계약 생산자의 선정과정에서 특정 계층의 배제 여부,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함의 등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농촌 빈곤 및 지역 간 불균등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계약 생산이 농업 현대화를 위한 정책 도구로 적극 도입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산물 계약 생산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계약 생산에 관한 기존 연구는 계약 생산의 운영 메커니즘과 그 영향을 이해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다음과 같은 지리학적 관점에 관해서는 장차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먼저 계약 생산이 농식품 체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제로서 다양한 행위자 간 수직적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계약 기업과 계약 농민 양자 간 상호작용 뿐 아니라 해당 농식품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생산 네트워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 생산이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계약 기업이 수행하는 공간 전략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계약 기업의

공간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계약 생산은 농촌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제로서 특정한 로컬 조건 및 글로벌 맥락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계약 품목의 생육조건과 관련된 지역의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지역 농민의 상대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농업의 발전 경로 그리고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지역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 등과 같은 계약 생산의 지리적 맥락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해당 품목의 농식품 체계에서 계약 생산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영역적 발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제는 계약 생산 연구가 지리학계의 관련 연구 성과와 접목될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장차 이에 관한 연구에서 지리학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때 계약 생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

- 1) 구매 계약과 달리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식은 생산 과정에 대한 기업의 개입이 나타나는 생산 계약(production contract)에 해당한다(Singh, 2002). Minot(1986)은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을 각각 시장 규격 계약(market specification contracts), 자원 공급 계약(resource-providing contracts), 생산 관리 계약(production management contracts)으로 명명한 바 있다.

참고문헌

- 장영진, 2013, 계약 생산과 초국적 농식품 체계: 제주도 제스프리 골드키위 농업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4), 585-596.
- 장영진, 2015, 계약 생산에 의한 기업 주도형 유기농농단의 형성: 전라북도 고창군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4), 522-538.
- 한주성, 2009, 상품·교통·공급사슬 개념과 관련된 지리학의 연구와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44(6), 723-744.
- Barik, S., 2012, *Agriculture Export Zone(AEZ) through Contract Farming Approach*, Lambert Academic Publishing.
- Biswas, A., Singh, B. and Kumari, G., 2013, *Impact of Contract Farming in West Bengal, India*,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 Bolwig, S., Gibbon, P., and Jones, S., 2009, The economics of smallholder organic contract farming in tropical Africa, *World Development* 37(6), 1094-1104.
- Boyd, W. and Watts, M., 1997, Agro-industrial just-in-time: The chicken industry and postwar American capitalism, in Goodman, David and Watts, Michael, eds., *Globalising Food: Agrarian Questions and Global Restructuring*, London: Routledge, 192-225.
- Castree, N., Kitchin, R. and Rogers, A., 2013, *Oxford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lapp, R., 1994, The moral economy of the contract, in Little, P. and Watts, M., eds., 1994, *Living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nd Agrarian Transformation in Sub-Saharan Afric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78-94.
- da Silva, B., 2005, *The Growing Role of Contract Farming in Agri-Food Systems Development: Drivers, Theory and Practice*, Rome: FAO.
- Davis, J., 1980, Capitalist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he exploitation of the propertied laborer, in Buttel, F. and Newby, H., eds, *The Rural Sociology of Advanced Societies*, Montclair, NJ: Allenheld, Osmon & Co., 133-153.
- Dicken, P., 2011, *Global Shift: Mapping the Changing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6th edition, London: SAGE.
- Eaton, C. and Shepherd, A., 2001, *Contract Farming*, Rome: FAO.

- Glover, D., 1994, Contract farming and commercialization of agriculture in developing countries, in von Braun, J. and Kennedy, E., eds., *Agricultural Commerci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Nutrition*, Johns Hopkins, 166-175.
- Glover, D. and Kusterer, K., 1990, *Small Farmers, Big Business: Contract Farming and Rural Development*, London: Macmillan.
- Hart, P., 1978, Geographical aspects of contract farm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upply of crops to processing plant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69(4), 205-215.
- Hasan, M. and Mandal, M., 2011, *Contract Farming for Production and Export of Vegetables in Bangladesh*, VDM.
- Huddleston, P. and Tonts, M., 2007, Agricultural development, contract farming and Ghana's oil palm industry, *Geography* 92(3), 266-278.
- Ilbery, B., 2001, Changing geographies of global food production, in Daniels, P., Bradshaw, M., Shaw, D. and Sidaway, J., eds., *Human Geography: Issu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Prentice Hall, 253-273.
- Imbruce, V., 2008, The production relations of contract farming in Honduras, *GeoJournal* 73, 67-82.
- Jones, S. and Gibbon, P., 2011, Developing agricultural markets in Sub-Saharan Africa: Organic cocoa in rural Ugand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7(10), 1595-1618.
- Key, N. and McBride, W., 2003, Production contracts and productivity in the U.S. hog sector,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5(1), 121-133.
- Key, N. and Runsten, D., 1999, Contract farming, smallholders, and rural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The organization of agroprocessing firms and the scale of outgrower production, *World Development* 27(2), 381-401.
- Knox, P., Agnew, J. and McCarthy, L., 2014, *The Geography of the World Economy*, 6th edition, New York: Routledge.
- Korovkin, T., 1992, Peasants, grapes and corporations: the growth of contract farming in a Chilean community, *Journal of Peasant Studies* 19(2), 228-254.
- Little, P., 1994, Contract Farming and the Development Question, Little, P. and Watts, M., eds., *Living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nd Agrarian Transformation in Sub-Saharan Afric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16-247.
- Little, P. and Watts, M., eds., 1994, *Living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nd Agrarian Transformation in Sub-Saharan Afric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Marsden, T., Munton, R., Ward, N. and Whatmore, S., 1996, Agricultural geography and the political economy approach: A review, *Economic Geography* 72, 361-375.
- Masakure, O. and Henson, S., 2005, Why do small-scale producers choose to produce under contract? Lessons from nontraditional vegetable exports from Zimbabwe, *World Development* 33(10), 1721-1733.
- Minot, N., 1986, *Contract Farming and Its Effect on Small Farmer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Working paper No.31, Michigan State University International Development Papers, East Lansing, MI.
- Miyata, S., 2007, Prospect of contract farming, in Wang, J. and Watanabe, M., eds., *Pork Production in Chin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Chiba, Japan, 1-21.
- Morrison, P., Murray, W. and Ngidang, D., 2006, Promoting indigenous entrepreneurship through small-scale contract farming: The poultry sector in Sarawak, Malaysia,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7, 191-206.
- Otsuka, K., Nakano, Y. and Takahashi, K., 2015, *Contract Farming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London: SAGE.
- Page, B., 2000, Agriculture, in Sheppard, E. and Barnes, T., eds.,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42-256.
- Porter, G. and Phillips-Howard, K., 1997, Comparing contracts: An evaluation of contract farming schemes

- in Africa, *World Development* 25(2), 227-238.
- Pritchard, B. and Connell, J., 2011, Contract farming and the remaking of agrarian landscapes: Insights from South India's chilli belt,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32, 236-252.
- Redclift, M., 1987, *Sustainable Development: Exploring the Contradictions*, London: Methuen.
- Robinson, G., 2013, *Geography of Agriculture: Globalisation, Restructuring and Sustainability*, London: Routledge.
- Runsten, D. and Key, N., 1996, *Contract farming in developing countries: Theoretical issues and analysis of some Mexican cases*, Report LC/L.989, UNEC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antiago, Chile, September.
- Simmons, P., Winters, P. and Patrick, I., 2005, An analysis of contract farming in East Java, Bali, and Lombok, Indonesia, *Agricultural Economics* 33, 513-525.
- Singh, S., 2002, Contracting out solutions: Political economy of contract farming in Indian Punjab, *World Development* 30(9), 1621-1638.
- Singh, S., 2005, *Contract Farming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Review of Theory and Practice with Special Reference to India*, Centre for Trade and Development, New Delhi.
- Smalley, R., 2013, *Plantations, Contract Farming and Commercial Farming Areas in Africa: A Comparative Review*, Future Agricultures Consortium Secretariat, Working Paper 055.
- TechnoServe-IFAD, 2011, Outgrower schemes-Enhancing profitability, *Technical Brief*, september, 1-12.
- Terry, A., 1997, Extending participation in the Swaziland sugar industry to small-scale growers: Patterns and prospects,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18(2), 196-209.
- Thrupp, L., 1995, *Bittersweet Harvests for Global Supermarkets: Challenges in Latin America's Agricultural Export Boom*, Washington, DC: World Resources Institute.
- Troughton, M., 1986, Farming systems in the modern world, in Pacione, M., ed., *Progress in Agricultural Geography*, London: Croom Helm, 93-123.
- Wang, H., Wang, Y. and Delgado, M., 2014, The transition to modern agriculture: Contract farming in developing economi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96(5), 1257-1271.
- Watts, M., 1994, Life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grarian restructuring and flexible accumulation, in Little, P. and Watts, M., eds., 1994, *Living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nd Agrarian Transformation in Sub-Saharan Afric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1-77.
- Weatherspoon, D. and Reardon, T., 2003, The rise of supermarkets in Africa: Implications for agrifood systems and the rural poor, *Development Policy Review* 21(3), 333-355.
- Whatmore, S., 2002, From farming to agribusiness: Global agri-food network, in Johnston, R., Taylor, P. and Watts, M., eds., 2nd edition, *Geography of Global Change: Remapping the Worl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57-67.
- Williamson, O.,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The Free Press.
- World Bank, 2007,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Washington DC.
- 교신: 장영진,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
 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전화:
 043-230-3508, 이메일: jangyj@knue.ac.kr
- Correspondence: YoungJin Ja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
 tio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28173,
 Korea, Tel: 82-43-230-3508, E-mail: jangyj@knue.
 ac.kr
- 최초투고일 2016년 8월 3일
 수정일 2016년 8월 22일
 최종접수일 2016년 8월 24일